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김성훈 니체타스, 최유진 아네스
다음주 독서: 정진우 아우구스티노, 우명희 카타리나
이번주 복사: 강선우, 이상인, 이주현, 이지은
다음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주현, 이지은
이번주 미사해설: 김대진 하상 바오로, 전은숙 글라라
다음주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우명희 카타리나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뉴엘, 김지영 알로이시아
친교실 정리: 제 1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81
교무금: \$ 510
Rice bowl: \$250.39

합 계: \$ 941.39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부터 미사 전 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 시 사제관
토요 교리모임	격주 토요일 4 시 성당 지하 친교실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복음 이어서)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느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부활 제 3 주일]

2011 년 5 월 8 일

<제 1 독서> 사도행전, 2, 14, 22 ~ 33

<제 2 독서> 베드로 1 서, 1, 17-21

화답송

-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뱃속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루카복음, 24, 13-35
주간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 “무슨 일입니까?”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옆면에 이어서)

[영성체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 136 봉헌: 214 성체: 178 파견: 245



생명의 말씀

지나쳐 가는 봄이 아닌 누리는 신앙의 봄

“바람과 햇살과 꽃들 같이 주어진 일상을 특별하게 다룬다면 봄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어느 작가의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유달리 늦게 시작된 사순절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 그렇게 더디 온 봄이지만 쉽게 떠날 것 같은 불안이 마음 한 구석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기다려 온 시간에 비하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 ‘봄날은 간다.’는 말이 봄날은 짧다는 말을 당연하게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봄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부활입니다.

오늘 복음은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한껏 봄날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던 그들이었지만 봄날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기다린 시간에 비해 누린 시간이 턱없이 짧아서 함께 한 추억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높았던 기대만큼 커다란 좌절을 겪은 그들의 눈에는 이미 예수님의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봄날은 너무나 짧아 되돌이킬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마음은 늘 간절하지만 부활을 누리는 시간은 늘 짧게만 느껴집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한 느낌 속에 빈 무덤은 부활의 상징이 되기는 했어도 삶의 나침반이 되지 못한 채, 망각의 강물에 흘러보내지는 느낌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익숙해져 누릴 수 있는 부활을 누리지 못한 채, 봄날은 간다는 말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것이 지난 삶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봄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상을 특별하게 다룬다면 봄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신앙의 봄인 부활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전례인 미사 전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짧은 봄날과 같은 분이 아니라 늘 봄날과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은 그 봄날을 우리와 영원히 누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지 짧은 봄날의 기억을 선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실 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제자들처럼” 부활은 잠시 지나쳐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누리는 전례를 통해 영원히 지속되는 신앙의 봄날이 됩니다. 다만 부활을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간직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일상의 전례를 특별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속에 자리하겠지만 말입니다. 해서 이번 부활은 매일의 성찬례를 통해 가는 봄이 아닌 오는 신앙의 봄으로 그렇게 맞이해 볼 일입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공지사항

- 지난 사순시기 동안 Rice Bowl 모금을 집계한 결과, \$250.39 이 모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인 성금은 CRS 에 보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은 5 월 8 일 어버이날, 그리고 Mother's day 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주의 교리

부활시기 전례적 특징과 상징들

■ 부활시기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 일 동안의 전례상 시기를 말하며 '파스카시기'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축제력에서 중요한 축제를 일정 기간 계속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옛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관습을 따라 파스카 삼일뿐만 아니라 50 일 동안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경축했던 것이 유래가 됐다. 50 일이라는 기간은 유대인들이 누룩 안 든 빵의 축제 다음 50 일 동안을 '주간 축제'로 지냈던 것에서 기인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알렐루야를 부르며 전례적으로 기쁨을 드러내는데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평일에도 전례 거행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활초를 제대 옆에 켜두게 된다. 이 시기동안 사제의 제의색은 백색이며 신자들은 부활삼종기도를 바친다. 성령강림 때까지를 부활시기로 지내는 것은 성령 강림이 예수 부활의 결과이고 이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부활의 위대한 신비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예수 부활 대축일은 구약의 파스카 축제와 연결된다.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의 음력으로 계산해 초봄의 만월인 니산(Nisan)달 14 일을 파스카 축제일로 지냈다. 오늘날에는 성 빅토리오 1 세 교황의 선언에 따라 춘분(3월 21 일)이 지나고 만월이 되면서 맞는 첫 주일을 부활 대축일로 지낸다. 부활시기의 주일들은 하루의 부활주일처럼 여겨지며, 그런 이유에서 예수 부활 대축일 다음 주일들은 부활 제 2·3·4·5·6·7 주일이라 부른다.

■ 부활 팔일 축제

부활 팔일 축제는 부활시기의 첫 8 일간을 일컫는다. 그 기원은 4 세기 초나 3 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의 전례는 파스카 신비에 초점을 맞추고 또 세례로 새로운 이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특징이 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부활 팔일 축제에 대해 사순시기처럼 교회가 합의하여 관습이 된 축제라는 의미로서 '교회의 합의'라고도 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기간 동안 노동을 하지 않고 매일 미사에 참여했으며 부활 때 세례 받은 새 영세자들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은총의 표시로 흰 옷을 입었다고 한다.

부활시기의 주일들은 사순시기나 대림시기처럼 어떤 대축일로도 대체될 수 없으며 각 주일들의 전례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영광이 일체를 이루는 파스카 신비를 하나의 축제처럼 거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학자들은 밝힌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부활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과 성령의 파견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음주에 이어서)